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예배
열왕기하 17:24-28
2025 년 9 월 21 일 오전 11 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 주여 도우소서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왜 신앙 교육이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왕기하 17 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북왕국 멸망 후,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경외를 배웠지만 끝내 혼합주의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왜 우리의 사명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 왕조의 돌연변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앓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북왕국도 공격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마리아 왕궁에서 정변이 발생합니다.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십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 년간 다스리며”(왕하 17:1). 호세아의 쿠데타 배후에는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있었습니다. 당시 앓수르 비문 기록을 보면, “디글랏 빌레셀 3 세는 이스라엘 사람 호세아를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승인과 지지를 얻어 북왕국의 왕이 된 호세아는 친 앓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이 아람이 멸망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1. 사마리아의 몰락과 이방 민족의 정착

헌데 호세아는 친 애굽 정책을 펼치며 앗수르에 반기를 듭니다. 그러자 디글랏 빌레셀의 뒤를 이은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3 절). 그러자 호세아는 얼른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물러갔는데, 호세아는 또 다시 친 애굽 정책을 펼치며 앗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앗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4 절). 그러자 살만에셀은 이번에는 호세아를 잡아 끌고 가서 앗수르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앗수르 왕 살만에셀은 호세아를 끌고 갔지만 새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란이 일어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왕이 부재한 중에도 북왕국은 앗수르에 반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만에셀은 사마리아 포위와 함락 작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앗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 곳을 삼 년간 에워쌌더라”(5 절). 헌데 예상 외로 사마리아는 앗수르 군대의 공성 작전을 잘 막았습니다. 무려 3 년이나 버텼습니다. 앗수르 왕 살만에셀은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살만에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르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호세아 제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6 절). 5 절의 앗수르 왕은 살만에셀이고, 6 절의 앗수르 왕은 사르곤입니다.

앗수르 측의 기록인 사르곤의 연대기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함락시켰다. 27,290 명의 사람을 거기서 끌어내어 포로로 삼았다.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 거기 살게 하였다.” 즉, 오늘 본문의 앗수르 왕은 사르곤 2 세입니다. 사르곤 2 세는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살아 남은 사람 27,290 명을 앗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대신 앗수르에

살던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24 절).

헌데 그들이 이주한 사마리아에 사자들이 떼를 지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25 절). 여러분, 사자의 습성상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떼로 사마리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방 민족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앗수르 왕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26 절).

그러자 앗수르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 한 명을 급파합니다. “앗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 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 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27 절). 여러분, 이 제사장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집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벧엘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28 절).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가정의 부모는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의 교육적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육적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 이방 민족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무엇이였을까요? 틀림없이 십계명이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백성들을 교육시킨 것입니다. 십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은 당연히 제 1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 20:3)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 제사장은 제 1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열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제 1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7 절).

2.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사마리아에 새로 정착한 이방 민족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고향에서 섬기던 자신들의 신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29 절).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 섬기던 신들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속곳브נות을 만들었고 곧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30-31 절).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32 절).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33 절).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34 절). 그래서 제사장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35 절).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 땅에 먼저 살았던 야곱의 자손과 맺은 언약, 계약이라는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오늘날 계약은 도장이나 서명으로 이루어지기에 쉽게 파기됩니다. 국가 간의 계약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중근동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당시 계약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피로 이루어지는 피의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희생 제물을 쪼개 놓고 피가 흥건한 사이를 지나가며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지라”고 맹세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이와 같은 피의 계약에 대한 묘사가 짧게 나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렘 34:18-21). 그렇게 피의 계약을 맺은 후에는 공동 식사를 합니다. 함께 식사하며 화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기록합니다.

십계명 돌판은 이러한 피의 계약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받은 제단에 뿌리고”(출 24:6). 희생 제물을 쪼개서 나온 피의 반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출 24:8). 그 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올라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만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출 24:9).

본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약 체결 후 갖는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 70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출 24:10-11).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뵈오며 먹고 마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기록하셔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3.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제사장은 이민족들에게 십계명이 피의 계약의 산물이라는 역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따르지만,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왕하 17:39). 허나 이민족들은 제사장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40 절). 십계명의 역사를 배우고도 이전 풍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제사장은 가르쳤지만,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실천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 세대가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41 절). 사마리아에 처음 정착한 1 세대들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고, 혼합주의 신앙은 세대를 걸쳐 계승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때 혼합주의 신앙 생활을 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앓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스 4:2).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귀환 공동체의 수장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혼합주의 신앙은 곧 우상 숭배임을 알았기에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며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가 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스 4:1). 그래서 에스라는 사마리아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적자가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고, 교회는 말씀과 공동체 훈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자녀와 교회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가르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이 시대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